

철학사

12. 아리스토텔레스의 신 휘튼 대학의 아서 홈즈 박사 저

자, 이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랬던 것처럼 형이상학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 주제로 넘어왔는데, 그는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물, 모든 종류의 변화 또는 생성 과정이 어떻게 신의 일부인지를 지적했습니다. 변화는 네 가지 요인, 즉 네 가지 원인으로 설명 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대상이 되는 물질적 원인뿐만 아니라, 힘을 행사하는 효율적 원인, 그리고 현상의 본질적인 성격인 형식적 원인과 목적, 즉 궁극적 원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그것이 모든 변화의 과정과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해당한다면, 더 큰 우주 안에서의 모든 종류의 움직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변화뿐만 아니라 행성의 자전, 우주 외곽에 있는 각각의 별들이 자전하는 현상에도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우주 전체의 끝없는 운동, 즉 공간 운동, 원형 공간 운동, 회전, 자전, 자전 운동에는 마땅한 인과적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물의 물질적 본질은 기본 원소와, 사물의 외곽과 행성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에테르를 통해 설명됩니다. 물질적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주 내의 효율적 원인도 명백합니다.

고정된 별들의 움직임이 에테르에 변화를 일으키고, 행성의 자전을 유지하며, 지구 대기의 변화를 유지하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변화 과정을 유지하게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 인과관계가 모든 것에 작용합니다. 고정된 별들의 본성에도 형식적 인과관계가 존재 하는데, 왜냐하면 별들이 자전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그 회전이 단순히 잠재력이나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된 것이라면, 우주의 운동, 더 나아가 가장 바깥쪽의 효율적 원인인 고정된 별들의 운동의 실재를 무엇이 유지시키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내린 결론을 기억하실 겁니다. 즉, 우주의 경계 너머에는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별들은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는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것들을 움직입니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모든 종류의 변화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고정된 별들에 미치는 영향 덕분에,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외적 원인인 그 별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내용 잘 이해하셨나요?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

하지만 일단 그의 지구 중심 우주관을 이해하게 되면, 행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별들은 지구 외곽에 고정되어 각자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움직이지 않는 원동력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원동력을 제외한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원동력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작용하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개해 나가는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형이상학』 제12권의 나머지 부분 , 6장 이하에서 그는 이 그림의 여러 측면을 다룹니다. 『형이상학』 제12권의 문학적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문학 비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쓰인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모아놓은 것일까요? 진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일까요? 문학 비평에서 다루는 그런 종류의 논의들 말입니다. 12권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으로 전해져 온 그림은 있고, 저는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고대 문헌과 비교했을 때, 이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이라는 증언은 필사본과 여러 판본에서 훨씬 더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카우프만 선집 6장 373~374페이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신이 '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 라는 주장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 는 순수한 실재라는 함의를 제시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잠재력과 현실성이라는 용어에 충분히 익숙해져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모든 변화는 어떤 잠재력의 현실화 입니다 . 그것은 바로 어떤 잠재력의 현실화입니다.

저는 잠재력을 발휘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잠재력을 발휘하여 다시 연단으로 돌아왔습니다 . 모든 변화의 과정은 그 사물이 지닌 잠재력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수한 실재라고 말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변화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변화는 불가능하다.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궁극적인 변화의 근원. 움직이지 않는 원동력, 순수한 실재.

그게 바로 중요한 점이죠. 왜 그는 그런 길을 택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나 마지막 장을 읽어 보면 앞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은 전적으로 선한 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더 나아질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더 나빠질 일도 없겠죠. 그러니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면, 플라톤이 말한 선의 이상처럼, 그런 의미에서 변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우주의 본질에 대한 그의 논증에서 그는 영원하고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사실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직선, 직선, 원형과 같은 다양한 이동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변하지 않는 이동 방식은 오직 원형 운동 하나뿐이며,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멈춰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 전환점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성과 항성들은 영원한 순환 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본질을 지닌 궁극적인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변하지 않는 본질을 지닌다는 것은 그 대상이 잠재력조차 없는 무(無)이거나 순수한 현실 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이 없는 순수한 현실, 따라서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플라톤은 물론 초월적 형상을 모든 가능한 변화로부터 면역된 영원한 것으로, 그리고 선의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선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모든 과정을 초월한 신이라는 개념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죠. 그렇죠? 어쩌면 제가 실재성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신이 완전히 실재했다면 어딘가에서 와서 완전히 실재한 존재로 발전해 온 것이어야 할 것 같은데... 아,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니네요. 아, 그리고 그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어떤 움직임의 과정도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란 언제나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던 존재라는 거죠. 순수한 실재라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 맥락에서, 당신은 그가 아무것도 아니거나 순수한 실체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같은 건가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거나 모든 것이 어야 한다는 거죠. 네, 완벽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범신론적인 생각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난번 수업 전후였는지, 아니면 수업 후에 누군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신론적인지 물어봤던 것 같은데, 『형이상학』 12권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는 초월적인 존재, 즉 존재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이유는, 『영혼론』에서 그는 개별적인 이성적 영혼뿐 아니라 우주적인 이성적 영혼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낙사고라스의 올가미, 정신, 이성처럼 말이죠. 만약 그가 그것을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와 동일시하려 한다면,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플라톤의 세계 영혼이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 어쩌면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현존하는 어떤 문헌에서도 두 사상 사이의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미친 그의 영향은 범신론적 방향보다는 유신론적, 이신론적 방향에 더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사실 창조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적어도 유대-기독교적 의미에서 창조 행위가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그런 의미의 창조자는 아닙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존재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사물에 존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7장, 아니면 8장에서 이 점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신은 효율적 원인이 아니며, 힘을 행사하지도 않고, 어떤 것의 움직이는 효율적 원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지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등등.

사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적어도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물질적 요소들은 영원하고 불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와 그 전체 구조가 영원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결국, 저 고정된 별들은 영원히 직선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원, 영원,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을 것이다. 보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영원과 불멸의 개념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움직임이 계속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순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 하나뿐입니다.

자,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관성의 원리 덕분에 그런 변화는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물체는 본래의 성질대로 운동 상태나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물리학에서는 변화가 인위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영원한 움직임을 유지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효율적 원인으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원인으로서 존재 해야 합니다 .

왜 안 되겠어요? 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원인이 되려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 힘을 행사해야 한다는 거죠.

힘을 행사한다는 것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힘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힘을 행사하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죠. 만약 변화가 없다면, 힘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원인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답은 당연히 목적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목적 원인이시지만, 효율적 원인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점을 아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원인이지만, 효율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의 본질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워서, 만물이 경이로움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경이롭다'라는 단어가 당신의 감탄을 자아내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아, 그는 '경이로움'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것처럼 되고 싶은 욕망. 그게 바로 그리게로의 생각입니다. 실현된 존재처럼 되고 싶어 함으로써, 그 움직임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별들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 그는 별들에게 단순히 무생물 이상의 어떤 속성을 부여 해야 했습니다 . 결국, 고대 그리스인들 중 물질을 무생물로 여긴 사람은 원자론자인 데모크리토스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이런저런 방식으로 탈레스의 생각에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살아 숨 쉬는 생명체라는 것이죠.

좀 더 유기적인 개념이라고 할까요? 살아있는 우주 말입니다. 그래서 항성들의 영혼은 이런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며, 그 사실에 경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고정별들의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많은 생명체들이 의식 없이 움직이니까요. 흙 속에 묻혀 있는 수산화 구근은 어떻게 언제 꽃을 피워야 할지 알았을까요?

음, 원하신다면, 그는 그것과 유사한 것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은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신은 단지 궁극적인 원인일 뿐입니다.

해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그는 9장에서 이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은 6장이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6장, 7장. 어디 보자. 네, 6장은 순전히 현실을 반영하는 장입니다.

7장이 최종 원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6장, 7장, 9장입니다. 8장에서는 단순히 우주론 과 항성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룹니다.

하지만 9장을 보세요. 만약 이 신적 존재가 순수한 실재, 즉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이자 궁극적 원인이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면, 그 실재를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을까요? 저자는 간단히 말해서 그 존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꼼꼼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되짚어보고, 명상하고, 즐기는 것 등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것뿐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만약 이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가 외부로부터 지각적 입력이나 다른 종류의 입력을 받는다면, 그는 외부 자극에 의해 특정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 순수한 실재체인 그는 이미 실현되었거나 실현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사고에는 외부로부터의 입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보지 못한다. 이와 같은 맥락이다. 만약 그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세계를 창조해낸다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활동이 펼쳐질 것이다.

아시 겠죠? 거기에도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이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원동력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정신 활동은 자기 의식, 즉 자신의 생각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대해 생각한다. 어차피 그는 항상 자기 생각을 잘 알고 있다.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리가 없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꼼꼼이 생각해 보았다. 이처럼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는 완벽하게 선하다. 완벽하게 선하다.

어떤 존재에게든 좋은 것은 그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에게 좋은 개란 될 수 있는 최고의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개의 현재 모습은 바로 그 잠재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좋은 학생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실재 그 자체인 사람은 순수한 선함 그 자체입니다 . 흠도 없고, 주름도 없습니다.

결핍도 없고, 선함이 결여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원하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자연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초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추론한 것에 기반한 신학이죠.

네. 그리고 그것은 후대의 유대-기독교, 이슬람, 자연 신학의 많은 부분이 발전해 나가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에 대한 고전적인 논증을 살펴볼 때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을 활용해 보세요. 창조론에 맞게 변형된 것이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따르는 자연 신학은 여기서 다루는 사고방식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네,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을까요? 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네, 그의 윤리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간의 자아실현은 신을 닮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은 신을 관상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꽃 구근들은 어떤가요? 그것들이 실현 되려면, 움직이지 않는 원동력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경이로움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아,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네요.

케일이죠, 그렇죠? 전구 비유가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그 비유를 사용한 이유는 전구는 무의식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전구도 반응하죠.

그게 제 질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약 구근이나 줄기 같은 내면의 대상의 영혼이 의식이 없다면, 어떤 덕목으로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말할까요? 음, 그는 의식적인 경이로움을 말하는 걸까요? 의식적인 사랑, 의식적인 갈망, 욕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어떤 사물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걸까요? 그런 것들에 본래부터 있는 어떤 활동을 향한 자연스러운 경향이요. 그는 모든 목적론적 과정에 의식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아주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목적론은 최종 원인을 지향합니다. 아니요. 그는 당신이 읽고 있는 물리학의 자연에 관한 부분에서도 똑같이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자연 과정에 궁극적인 원인이 작용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인간과 동물에게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지만, 그 외에는 무의식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고요? 궁극적인 원인은 사물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물의 본질, 형태 자체가 그러한 잠재력, 경향성, 추진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신이 우주를 감아 올리는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놓아주면 우주가 서서히 풀리는 것처럼 보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치 우주가 애초에 감길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주가 결코 멈추지 않는 이유는 신이 어떤 자기력 같은 끌어당김을 계속해서 발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아요? 우주를 유지하려면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자연적인 과정 자체에 충분한 힘이 내재되어 있고,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되고 방향을 잡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부분을 풀어주는 것뿐입니다, 데이비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우리가 형용사로 사용하는 '선한'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선한' 신인가요? 아니면 대문자 G로 쓰는 '선'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는 플라톤처럼 형용사로도, 명사로도 '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질문은 그것이 어떤 형이상학적 완벽함을 의미하는지 묻는 것일 겁니다.

아니면 도덕적 완벽함을 의미하는 걸까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형이상학적 완벽함,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존재 말이에요. 이해 되시죠? 음, 분명히 그는 첫 번째, 즉 형이상학적인 완벽함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10장과 그의 저서의 다른 한두 곳에서 그가 말하는 방식을 보면, 제 생각에는 그는 두 번째, 즉 도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두 번째 의미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관을 비판하면서 신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신이라는 개념은 형이상학적 체계를 뒷받침하거나 완성하는 형이상학적 기능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분명히 그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신이라는 개념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의 이상을 구현하는 도덕적 기능도 합니다.

본래 선한 성품, 인격, 행동.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의미를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인들은 도덕적 가치가 형이상학에 근거한다면, 형이상학적으로 선한 것은 필연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이라는 개념이 갖는 또 다른 기능은 종교적 숭배의 대상, 종교적 헌신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종교적 헌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읽으면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이로움, 사랑, 닮고 싶어하는 마음 같은 단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신을 모방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신을 관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활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의 정치 사상 중 한 부분에서는 정부가 종교 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도덕적 선을 지지하는 종교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국가의 기능은

도덕적으로 선한 삶, 즉 좋은 삶을 달성하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종교가 바로 그러한 삶을 뒷받침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제시된 신이 주로 형이상학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의 사상 속에서 도덕적, 종교적 기능도 여전히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에 대해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은 바로 신입니다.

그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생각만 하는 모습이 어딘가 무의미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다른 시대에 자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낭만적인 미덕, 즉 열정과 사랑에 대한 어떤 근거나 이유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음, '어리석다'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냉담한 느낌이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아니요, 아리스토텔레스에는 네 가지 영적 법칙 같은 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마도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인격적'이라고 말씀하시려는 것 같네요.

의식적인 사고와 도덕적 성품이 인격을 정의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그의 언행으로 미루어 보아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과는 거리가 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육신하신 신과는 더욱 거리가 멉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내어주는 것? 오, 전혀 그렇지 않죠. 자연 신학의 신이 대개 그렇듯 말입니다.

결국, 자연 질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신에 대한 이해를 도출하려 한다면, 로마서 1장은 우리가 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물론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 신학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에 대해 계시된 종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의 종교들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당신이 다섯 가지의 신, 다섯 가지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네, 당신 말이 맞아요. 보세요, 앞으로 천 년 동안, 그러니까 그 다음 2~3년, 아니 500년 안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500년 안에, 플라톤의 형상론이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이든, 영원한 이상들의 세계를 자연 세계, 즉 우리의

존재와 행위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해 되시죠? 모방할 영원한 패턴이 있다고 말하는 것, 심지어 모방할 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연계나 인간계, 역사, 인간의 삶 속에서 권력의 행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힌 것은 전능한 창조주로서의 신에 대한 유대-기독교적 개념이 그리스 사상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가장 초기의 기독교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스인이라면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플라톤조차도요. 전능자? 창조주? 네, 데미우르고스죠.

하지만 전능하시다고요? 아시 켜어요? 아니, 사도신경의 첫 구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창조의 효율적 원인이시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시 켜어요? 와, 정말 혁명적이죠! 아시 켜어요? 음,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뤄야 할 거예요. 다른 모든 주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이는 교부 시대에 세계관의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자연주의, 이원론, 범신론, 유대-기독교 유신론 등 말이죠.

네. 오늘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정통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저서를 많이 쓴 사람 중 한 명은 헨리 베이치라는 분입니다. 그는 인디애나 대학교와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였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고, 매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말했던 소피스트를 기억하시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윤리적 함의로 이어지는데, 인간의 가장 고귀한 목적은 인간의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신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신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높은 목표입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방향을 제시했죠.

자, 어디 보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특히 그의 자연신학에서 벗어나 그의 논리학과 인식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겠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인식론에 관한 저술들은 그의 사후 주석가들과 제자들에 의해 '오르가논'이라는 총칭으로 묶였습니다. 오르가논은 간단히 말해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오르가논 안에는 아주 다양한 저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불렀다 범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석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사전 분석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후 분석론이고, 또 하나는 주제론이며, 마지막으로 퀴변적 반박론이 있다.

『후 분석론』에서 발췌한 내용이 조금씩 실려 있습니다. 각 저서의 주요 주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어떤 분야에서 활동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주론은 용어, 단어, 그리고 용어들이 우리의 사고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해석론은 명제의 논리를 다룹니다.

용어가 아니라 명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명제는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부정하는 것입니다. 명제는 주어, 술어, 연결사로 연결된 "S는 P이다" 또는 "S는 P가 아니다"의 형태를 가집니다.

에 어떤 것을 서술하는 것. 그러니까 그는 우리 해석학에서 명제의 논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 분석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삼단논법의 논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삼단논법은 당연히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제들은 항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해하셨죠?

일반적으로 삼단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됩니다. 논리적 관계를 통해 결론, 즉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논리 체계, 즉 논리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고, 그것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은 여전히 논리학 수업에서 가르치는 기본 논리학이며, 이후 논리학 발전 의 많은 부분을 뒷받침합니다. 『분석론 후편』 에서 그는 자신이 과학적 추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전제 에 도달하는 방식 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전제, 즉 기본 전제가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토픽스》에서 그는 변증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삼단논법을 발견하기 전에 쓴 초기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토론 등에 유용한 변증법적 논증 방식에 관한 것 입니다 .

수사학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궤변적 반박』 은 그가 생각하기에 궤변가들이 무분별하게 저지르는 논리적 오류에 관한 것입니다 . 그들이 하는 일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오르가논에는 논리학 교과서 전체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만약 글이 그렇게 지루하게 쓰여 있지 않았다면, 적어도 읽기에 지루하지 않았다면, 꽤 괜찮은 논리학 교과서가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논리학 입문 교과서들이 바로 그런 식의 목차를 가지고 있죠.

혹은 그와 매우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카테고리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82페이지에 카테고리 선택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다섯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중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첫 부분 입니다 .

선택. 아리스토텔레스 자료에서요. 그리고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논의를 그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겁니다.

아마 당신은 답답함을 느끼고, 도대체 왜 이게 중요한지 의아해했을 겁니다. 어쩌면 지루했을지도 모르죠. 등등.

형이상학적인 부분 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범주론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가 종, 속, 차이점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에는 표준 용어들이 있지만, 사물을 종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종을 더 큰 속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단일 속. 그리고 더 큰 과, 그룹 등. 이것이 바로 그의 분류 방식입니다.

차이점(Differenti)이란 한 종을 다른 종과 구별하는 본질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즉, 한 속을 다른 속과 구별하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 또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할 때, 그는 두 가지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속 내에서 인간을 다른 종과 구별하는 특징은 합리성과 사회성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다른 동물 종과 구별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그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용어는 우리가 어떻게 참인 첫 번째 전제를 알 수 있는지 묻는 부분에 이르러서야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속이나 종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면, 그 속이나 종 내의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전혀 추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존재의 본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존재에 대해 논쟁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 무엇이 그들을 인간답게 만드는지 모르면 어떻게 인간과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좋은 것에 대해 논쟁할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필요한 전제를 얻으려면, 그가 논의할 대상들의 본질, 즉 성격을 파악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4장 283절에서 그는 우리가 형이상학에서 처음 접했던 존재의 범주들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는 그것들이 사고의 범주로 소개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283쪽 4장에서 결합되지 않고 그 자체로 용어로서 사용되는 것들의 목록을 매우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각각의 단어는 이 중 하나를 의미하며, 어떤 단어든 이 중 하나를 의미할 것입니다.

실체, 속성, 자격, 관계, 상대적 관계, 장소, 시간, 위치, 소유, 행위, 영향받는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입니다. 그의 요점은 논리적 추론에서 논의 도중에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갑자기 전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0세기, 특히 1950년대에 일부 영국 철학자들이 사람들이 범주 오류를 범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주 오류란 논의 도중에 범주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길버트 라일이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 즉 마음과 몸이라는 두 실체를 범주 오류라고 지적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은 실체입니다. 그게 맞는 범주죠. 하지만 마음을 단순히 속성이나 기능이 아니라 실체, 즉 사물로 말하는 것은 범주 오류입니다.

길버트 라일에 따르면, 심신 문제 전체는 범주 오류에서 비롯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 과정에서 용어의 의미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용어를 바꾸어 모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이전에 들려드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제게 세상 전부예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잖아요.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한 단어를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말장난의 오류를 잘 보세요. 이 표현은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즉 '세상 전부'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연인을 좋아한다는 건 경험적 일반화죠. 당신은 제게 세상 전부예요. 가치 판단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가치 판단이에요.

첫 번째는 물질 용어입니다. 범주를 잘못 선택했어요. 알겠죠? 범주를 혼동한 거예요.

그가 지적하고자 하는 오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오류입니다. 삼단논법에서 중간항, 즉 명제들을 연결하는 항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려면 두 번 모두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들을 도입하는 것은 그의 논리적 장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그는 '실체'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억하시나요? 일차 실체와 이차 실체 말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잊으셨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차 실체는 개체이고, 이차 실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범주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실체와 부차 실체의 구분을 설정하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집중하고 싶은 것은 후속 분석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사물의 종류에 대한 불변의 진리, 일반적인 진리 말입니다.

자, 당연히 어떤 종에 대한 일반적인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 종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점이고, 본질입니다.

그것은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어떻게 형태를 알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태를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전제가 형태에 관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물의 본질적인 속성에 관한 것이죠.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는 가능성을 재검토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감각 관찰만으로 형태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감각 관찰은 우리에게 개별적인 것들만을 제공하며,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감각 지각은 시야각과 수많은 다른 요소들에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감각 관찰로는 형상에 대해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선천적 지식은 어떨까요? 플라톤의 제안은요? 음, 플라톤에게는 그게 좋은 선택이었죠.

훌륭한 생각이야, 플라톤. 만약 형상이 초월적이고, 네가 전생의 다른 영역에서 그것들을 알았고, 그 기억이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선천적인 것이 되는 거지.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플라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초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형상을 알았던 전생이 있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선천적 지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상이 선천적이라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